

# 방송가 누비던 '대니 구' 광주 공연



다음 달 18일 광주서 공연을 펼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Sangwook Lee)



피아니스트 조윤성.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크리스마스를 맞아 국제무대는 물론 KBS '불후의 명곡', MBC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JTBC '슈퍼밴드' 등에서 활약해 온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광주를 찾아온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 초청공연 'Home'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젊은 세대와 소통을 표방하는 기획공연 포커스 일환이며, 대니 구와 호흡을 맞춰 온 피아니스트 조윤성, 드러머 석다연 및 베이시스트 셉 펜트랜드(조윤성 트리오)가 협연할 예정이다.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데뷔한 대니 구는 팝,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경계를 허물어 왔다. 2022년 첫 솔로앨범 'HOME'을 필두로 2집 'CONNECTED' 등과 함께 클래식 리사이틀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국제 음단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내악 연주자이기도 하다. 랜달 스킨라타, 킴 카쉬카시안, 쉘론 로빈슨, 요셉 칼리히슈타인을 비롯해 피터 비스펠베이, 브렌타노 파르렛 등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춰 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출연, 예술가의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았다.

## 국제 음단서 끊임없는 러브콜 축망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다음달 18일 광주예술의전당 조윤성 트리오와 'Home'

방송 장면에는 대니 구의 연주회 준비 루틴부터 운송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공연은 대니 구가 올해 초 발표한 앨범 '문라이트(MOONLIGHT)' 수록곡으로 막을 올린다. '러브레터', '트와일라잇 왈츠' 등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켜줄게요 나의 당신을 가슴에 새겨 나 이 약속을/ 비와도 나는 그대 곁에 있을게요 이곳에/ 비가 그친 후 무지개처럼 그대만 기다려온 나는/ 매 순간이 꿈같아."

그중 타이틀곡 '러브 레터'는 대니 구가 직접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에 사랑의 낭만과 환상을 녹여내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피아졸라 곡 중에서도 그의 전형적인 랩고를 기반으로 한 빠른 춤곡이 아닌, 애수 어린 감정이 깃들여 느린 '망각'도 울려 퍼진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외 1974년 발표 이래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리베르 팅고', 1970년 그룹 '리턴 투 포에버' 당시 발표해 30여 년간 전 세계 재즈 팬을 매료시킨 칙 코리아의 '스페인'이 레퍼토리에 있다.

대니 구는 대니 구의 1집 수록곡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담은 'Blue Flame'이 장식한다. 낯선 세계에 진입하는 인간의 감정을 푸른 불꽃과 같은 격정적인 멜로디에 은유하는 노래.

협연자로 아르헨티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 미국 버클리 음대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수학한 조윤성이 출연한다. 그는 USC 델로니어스 몽크 인스티튜에 아시아인 최초로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2010년까지 할리우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교수로 8년간 재직, 이후 프랭크 시나트라 밴드의 수석 피아노 주자로 활동했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젊은 감각으로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대니 구가 낭만적인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평소 아껴왔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오래 음악적 파트너인 조윤성 트리오와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적인 앙상블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미산제 홍보가속 '고법의 향기'

이명식 고법 발표회, 2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지역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명식(66·사진) 고수가 고법 발표회에서 복채를 잡는다. 두리동국악예술단이 오는 22일 오후 22일 오후 5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펼치는 '제4회 이명식 고법 발표회'에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보존회 전북도 지회장인 정소연 명창을 초청해 '미산제 홍보가'에 장단을 맞추어 펼칠 예정이다.

'미산제 홍보가'는 김창환부터 오수암, 박초월 및 최난수로 이어져 온 소리제다.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교훈을 서사에 녹여냈으며 비통한 가락, 애원성이 돋보이는 계면조 가락이 돋보인다. 해설에 이관형(벤델대학 총장).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이명식 고수는 2001년부터 20여 년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전주전국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빛고을 국악전수관 강사로 19년째 활동 중이다.

아울러 정소연 명창은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부 단원,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전북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강산제 '심청가' 및 미산제 '홍보가', 창작판소리 '열사기' 등을 완창 발표하면서 소리에 천착해 왔다.

이명식 고수는 "일찍이 정암 김성권 선생의 문하에서 판소리 고법을 이수한 뒤, 여태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선보여 왔다"며 "수차례의 원창, 완복 공연은 물론 '고법의 향기'라는 주제



로 여태 3차례 개인 발표회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네 번째 개인 발표회에서는 '정암 김성권' 고법의 간결함,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가락을 살려 연주할 것이다"며 "학이 춤추는 듯한 너름새와 달고 맺고 푸는 가락, 추임새 등을 끌어 올려 소리판을 재미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검은 섬'

이주빈 시인 첫 시집 발간... 고향 모티브로 작품 엮어

이주빈 시인은 신안의 섬 흑산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목포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글을 쓸 만한 좋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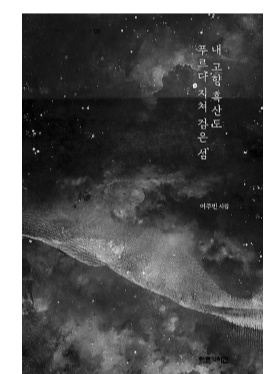
그는 이후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목포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오마이뉴스 기자로 20여 년간 활동했으며 지금은 섬문화 다양성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첫 시집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검은 섬' (어른의 시간)을 펴냈다.

시집을 발간한 이유에 대해 "원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섬에 대한 편견, 오해가 많다. 섬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문화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화 자원을 보유한 섬은 제 부모님이기도 하고 이웃들이기도 하다"며 "오래 전부터 그분들의 이야기를 쪽 써왔다"고 했다.

이번 시집을 펴내기까지 시인인 강재운 섬연구소 소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페이스북에 가끔 시를 올렸는데 강 시인이 시집을 내자고 제안을 했다는 것. "섬은 제 가장 잘 아는 공간이자 활동하는 공간"이라며 "나아가 섬마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며 삶의 공간"이라고 이 시인은 의미를 덧붙였다.



간결한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합해 보는 맛 듣는 맛을 선사한다. 마치 동화 속 신비로운 풍경을 펼쳐놓는 듯하다.

이 시인은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를 다룬 '구름 비의 노래를 들려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를 10년간 취재했으며 강정마을에 직접 내려가 상주를 했다.

한편 이 시인은 흑산도 고래잡이를 최초 연구한 논문 '일제강점기 대흑산도 표경근거지 연구'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친구들이 '마한史' 토론해 볼까?

전남문화재단, 오늘까지 '마한 역사 청소년 토론' 참가자 모집

기원전부터 6세기까지 전라-경기-충청 권역에 분포했던 마한(馬韓)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원삼국시대를 구성했던 나라다. 삼한 중 가장 큰 영향력과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 외에는 고대사에서 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 문화재연구소가 '마한(馬韓) 역사 청소년 토론대회' 참가자

를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마한 국제학술문화제'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한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치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토론 주제는 '마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어떨까?', '1500년 전 마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등 학년별로 달리 제시된다. 마

한역사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교생 누구나 팀(교사 1명에 학생 4명)을 꾸려 참여 가능하다.

대회는 당일 예선·본선으로 나눠 진행하며 우수 팀에게 전남도지사,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당일 '인문학 살롱', '특별전', '체험부스' 등이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마한 역사는 우리 역사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며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나온 유물, 유적, 사료 등을 매개로 마한을 상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구글 폼 신청./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